

La Dolce Vita

이탈리아 리비에라의 보석,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

195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는 이제 이탈리아 해안 휴양지를 대표하는 이름이다.
그런가 하면 남쪽으로 5킬로미터 떨어진 포르토피노 역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천혜의 휴양지다.

Santa Margherita Ligure has epitomized the all-Italian seaside resort since the 1950s.
Five kilometers to the south, Portofino has a reputation for glamor that spans the globe.





프랑스 남동부 칸, 니스, 망퐁에서 이탈리아 북서부 산레모, 제노바, 라스페치아까지 휴양 도시가 해안선을 따라 줄줄이 이어지는 지역을 흔히 리비에라라고 부른다. 이탈리아어로 '해안선'을 뜻하는 이 단어는 이제 지중해, 특히 리구리아 해에 면한 남부 유럽의 휴양지와 동의어가 되었다. 그중에서 제노바 동쪽의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는 남쪽에 인접한 포르토포노와 더불어 동(東) 리비에라, 즉 이탈리아 리비에라의 숨은 보석이라 불린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햇살, 해변의 산책길 옆으로 늘어선 화려한 색상의 건물, 물가를 따라 걸으며 파도에 발을 적시는 젊은이들과 닥스훈트 종(種) 강아지를 데리고 느긋한 걸음을 옮기는 노인들, 그리고 잔잔한 바람을 등지고 먼바다로 나서는 작은 요트들. 한겨울에도 온화한 날씨를 보이는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의 매력적인 풍경이다. 부유한 이탈리아 행락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일대가 유럽 전역에 휴양지로 알려진 건 불과 한세기 전쯤의 일이다.

이탈리아 리구리아 해 연안 지역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고난의 역사 자체였다. 지난 2000년 동안 로마 제국과 제노바 공국, 프랑스의 나폴레옹, 그리고 사르데냐 왕국이 이곳을 점령했고, 그 흔적을 곳곳에 남겼다. 그러나 주민들의 회복력은 놀라웠고, 외세가 부리고 간 짐들과는 상관없이 그들만의 정체성을 지

It may be a winter's afternoon on the Italian Riviera. But like almost every day here, the sun shines brightly on Santa Margherita Ligure. Reflections shimmer off the candy-colored facades that line the town's seafront promenade. A couple of teenagers make the most of the clement weather, splashing around in the beach's shallow waters. Nearby, two elderly ladies amble along with a plump dachshund, all three bundled up in matching mufflers. Laughter skims across the water from the deck of a small sailboat, puffing its way out to sea on the back of the afternoon breeze.

The scene is undeniably bewitching. There is little wonder that this Ligurian resort has been a magnet for affluent Italian holidaymakers for more than a century. Italy's coastal Liguria region has a volatile history, with Santa Margherita Ligure beset by wave after wave of foreign invaders. Over the past two millennia, the Romans, the Republic of Genoa, Napoleon and the Kingdom of Sardinia have all previously occupied the town.

Yet, the citizens of Santa Margherita Ligure are of resilient stock — for the most part ignoring their ever-changing overlords and retaining their own irrefutable identity. That means that for centuries, this tiny village was perhaps best known for its robust fishing fleet and their famous hauls of *gamberi rossi*, or sweet prawns.

It was during the late 19th century that the fate of the picturesque town slowly began to change. Along the 5km seafront strip between Santa Margherita Ligure and Portofino to the south — lapped by emerald green waves and backed by fragrant Aleppo pines — sumptuous hotels and private villas were constructed. This dazzling section of coastline, nicknamed the Costa dei Delfini or “Dolphin Coast” became a getaway for Italy's aristocrats. Santa Margherita Ligure was soon attracting big international names like Friedrich Nietzsche and Wassily Kandinsky.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 출신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조각상(위). 유서 깊은 이탈리아의 해안가 마을인 이곳의 파스텔 톤 건물도 볼거리다. 화려하게 장식된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의 성당 내부(오른쪽 페이지 위, 아래).

A statue of Santa Margherita Ligure's most famous son, Christopher Columbus (above). This historic Italian seaside town is known for its pastel-colored buildings (opposite top). The ornate Basilica of Santa Margherita Ligure (opposite bottom).





킨 채 그 시간을 거쳐왔다. 그건 이 작은 마을이 수백 년 동안 '감베리 로시'라는 새우 산지였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 마을의 그 고단한 운명이 변하기 시작한 건 19세기 말부터다. 앞으로는 에메랄드빛 파도가 출렁이고 뒤로는 향긋한 알레포 소나무가 도열한,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부터 포르토포노에 이르는 5킬로미터의 해안을 따라 화려한 호텔과 개인 저택이 속속 들어섰다. 일명 '돌고래 해안'이라는 의미로 현지인들은 '코스타 데이 델피니'라고 부르는 이 눈부신 해안선은 이탈리아 귀족들의 휴양지가 되었다.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의 아름다운 풍경이 서서히 입소문을 타면서, 이 지역은 머잖아 독일의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와 러시아의 화가인 바실리 칸딘스키 같은 세계적인 유명인사들까지 불러들였다.

철로가 놓이면서 흐름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우아함에 접근성까지 갖추게 되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햇살이 눈부신 카페와 해변의 레스토랑들은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아르헨티나의 영부인이었던 에바 페론 같은 부유한 손님을 맞이했다. 1950년대부터는 이웃한 포르토포노도 꾸준히 변화를 꾀한 끝에 세계적으로 부와 명성을 누리는 사람들을 위한 그림 같은 휴양지의 면모를 갖추었고, 소피아 로렌, 프랭크 시내트라, 그리고 브리지트 바르도 등의 발길이 이어졌다.



16세기에 세워진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의 요새는 인근 해안가를 굽어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마을은 외세의 침략을 꾸준히 받아왔다(맨 위). 카페 델 포르토 바 앤드 레스토랑은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메뉴를 제공하는 식당 중 하나다(위). 이곳 마을 안에는 피아차 카프레라와 같은 공공 광장이 곳곳에 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형성된 청과물 시장 풍경(오른쪽 페이지 위, 아래).

A 16th-century fortified castle in Santa Margherita Ligure overlooks the sea. The town was frequently attacked by foreign invaders (top). The Caffè del Porto bar and restaurant, one of the many excellent eateries in town (above). (Opposite from top) The town has several serene public squares, like Piazza Caprerà; a market on a narrow alley.

Scores of Stars It was the arrival of the train line to Santa Margherita that sealed the deal. Elegance, combined with accessibility, began to draw crowds to the resort just after World War II. Sun-dappled cafés and waterfront restaurants flung open their doors, catering to well-heeled visitors like Argentina's former first lady Eva Perón.

From the 1950s, neighboring Portofino steadily began to transform itself into a postcard-perfect getaway for the internationally rich and famous. Frequent visitors included Sophia Loren, Frank Sinatra and Brigitte Bardot.

Today, Santa Margherita Ligure still offers a taste of la dolce vita. Flashy yachts may moor up in the town's marina. But, with the exception of those 21st-century playthings, the seafront scene has hardly changed in five decades. Burly fishermen continue to pile up their daily catch — including gamberi rossi — at the fish market opposite the port. Along the promenade, palms and citrus trees billow in the breeze, while children race around the monument celebrating Liguria's most famous son, Christopher Columbus.

Wander Santa Margherita Ligure's medieval streets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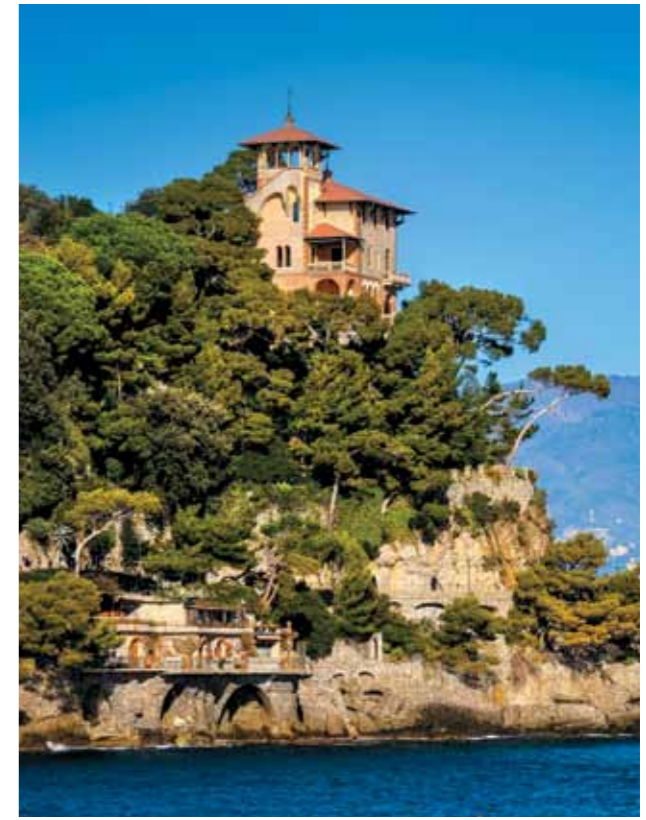


달콤한 인생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는 여전히 근심걱정 없는 휴양지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선착장의 화려한 요트들도 그런 느낌을 더한다. 하지만 21세기의 놀잇감들을 제외한다면, 해안의 풍경은 5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지금도 우락부락한 채구의 뱃사람들은 감베리 로시를 포함하여 그날 잡아온 해산물들을 주섬주섬 모아다가 주중의 저녁마다 열리는 항구 건너편 어시장으로 옮겨 나른다. 산책길 옆에 늘어선 야자수와 시트러스 나무들이 산들바람에 굽이치고,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가 낳은 가장 유명한 인물인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조각상 옆에서는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며 뛰어논다.

여행객들은 중세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의 길을 거닐며 정밀하고 웅장한 프레스코화로 장식된 우아한 팔라초와 곳곳에 있는 건축물을 감상한다. 뒷골목 광장에는 물을 뿜어 올리는 분수와 유서 깊은 예배당이 감춰져 있다. 나무들이 도열한 마테오티 대로에서는 금요일 아침마다 청과물 노천 시장이 열리고, 그곳에서 서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훼손되지 않은 모습을 간직한 포르토포노 지역공원으로 이어진다.

이제 곧 여름이 오면 인근의 포르토포노에는 또다시 돌체 앤드 가바나, 주드로, 리애나와 카일리 미노그 등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세계적인 스타들이 앞다투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트로페를 비롯한 지중해의 여타 휴양지와 달리, 포르토포노와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는 휴양지 지역의 전매특허와 진배없는 현란함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이곳에서는 포르토포노의 조각공원을 무심하게 거니는 할리우드 배우를 우연히 지나칠 수도 있고,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의 뱃사람과 저녁 식전주를 앞에 놓고 기분 좋은 농담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이 지역의 풍경을 보다 넓은 시야에서 한눈에 담아보고 싶다면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에서도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인접한 라팔로에 가보자. 여기서 1934년에 만들어진 낡은 케이블카를 타고 느릿느릿 산 정상에 올라 성모 몬탈레그로의 성역을 방문할 수 있다. 그 아래로는 티굴리오 만(灣)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부터 포르토포노까지 이어지는 해안선이 한눈에 들어온다. 바르도와 로렌, 니체와 칸딘스키가, 그 후로도 수많은 스타들이 이 풍경을, 자연의 선물을 감상했다. ● 글 카트린 토마세티 사진 카를로 모루키오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에서 남쪽으로 약 5킬로미터 떨어진 포르토포노의 부둣가 레스토랑. 카스텔로 브라운 성에서 바라본 포르토포노의 구시가지와 항구전경(왼쪽 페이지 위, 아래). 이 지역의 빌라 대다수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위).

(Opposite from top) Dining alfresco on a sunny day in Portofino, located 5km south of Santa Margherita Ligure; a view of the lively, colorful Portofino harborfront and old town from Castello Brown. One of Portofino's many private villas overlooking the sea (above).

take in Ligurian architecture, including palazzi decorated with vast trompe-l'oeil frescoes. Sleepy backstreet piazzas are home to bubbling fountains and ancient chapels. Tree-lined Corso Matteotti hosts Friday morning's open-air produce market, while the Portofino Regional Park spills its unspoiled way westwards from here.

Come summertime, nearby Portofino may continue to be crowded with the world's most impressive A-listers. Yet, unlike other Mediterranean resorts, both Portofino and Santa Margherita Ligure remain decidedly unshowy. You are as likely to cross paths with a Hollywood actor as you are to exchange pleasantries with a local fisherman.

To get a better sense of perspective, head north to nearby Rapallo. Here you can hop aboard a 1934 cable car, which shimmies its way up to the hilltop Sanctuary of Our Lady of Montallegro. Panoramas sweep along the whole of the gulf, taking in the coastline from Santa Margherita Ligure to Portofino. The same backdrop once greeted Bardot and Loren, Nietzsche and Kandinsky — and a score of other stars since. ● By Kathryn Tomasetti Photographs by Carlo Morucchio



이탈리아 리비에라의 보석 하나,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

Stroll Through Antiquity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의 유적지를 거닐며 고대 로마부터 르네상스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보자. 오랜 역사만큼이나 볼거리가 풍성한 지역이 바로 이곳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다.

Trace the area's unique history from Roman times to the Renaissance at the historical monuments of Santa Margherita Ligure.

'행운아'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의 시민 1만 명은 2000년의 역사를 품고 살아가고 있다. 아랍과 베네치아, 튀르크와 프랑스의 공격에 도시는 파괴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침략자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인 성곽 교회, 수도원이 지금껏 남아 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노천 카페 테라스를 지나 또 다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라면 빌라 두라초를 들 수 있는데, 16세기에 세워져 지금은 순수 예술을 위한 공공 미술관으로 변신한 이 저택에서는 산타 마르게리타의 해안 풍경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진다. 르네상스 시대 조각들이 곳곳에 자리한 이탈리아 정원와 영국식 숲은 최고의 결혼식

장소로 꼽힌다. 이 저택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는 건 제노바 성이다. 이 성은 1550년에 북아프리카 이슬람 세력인 사라센의 공격에 저항하기 위해 세워졌지만 이제 이곳의 높은 돌담은 여름마다 야외에서 개최되는 예술과 문화 행사에 그늘을 드리워준다.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은 산타 마르게리타 디 안티오기아 성당의 역사는 더 오래되었다. 1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17세기의 건물이 피아차 카프레라 광장을 굽어보며 서 있다. 그림과 물딩, 프레스코화가 불만하다.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에서 포르토피노로 넘어가는 길에 체르바라 수도원이 나온다. 베네딕트 수도회 수사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가꾼 이곳 정원은 일대 절경이다.

Santa Margherita Ligure, a town of just 10,000 residents, has a history that goes back 2,000 years. Attacks by Arabs, Venetians, Turks and French should have ravaged the city — not so. Instead, each successive invasion left a legacy that lives on to this day. Visitors may take in one historic sight before crossing an alfresco café terrace to the next. Chief among these is the Villa Durazzo (www.villa.durazzo.it). This 16th-century villa, now a museum adorned with fine art, commands views across the Santa Margherita seafront. With Italian gardens and

English forests dotted with Renaissance statues, it makes for the ultimate wedding venue. Guarding the villa from seaborne invaders is the Genoese Castle. It was built in 1550 to ward off Saracen attackers from North Africa. Its towering stone walls now shade art and cultural events, which are held outdoors in summer. The nearby Basilica of Santa Margherita di Antiochia is far older. From its 13th-century roots now rises a 17th-century facade overlooking Piazza Caprera. A wealth of paintings, moldings and frescoes twinkle beyond the two aisles. A hike from Santa Margherita Ligure on the way to Portofino lies the Cervara Abbey. Generations of Benedictine monks planted the gardens with wisteria and jasmine, lemon and bitter orange, sage and thyme. Step inside to see a vaulted ceiling supported by striped marble columns.

이탈리아 리비에라의 보석 둘, 포르토피노

Portofino's Pearls

포르토피노는 유럽은 물론 전 세계 유명인사들의 은신처 같은 곳이다. 유서 깊은 스플렌디도 호텔에서 벨리니 칵테일을 마시며 스타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일품이다.

Portofino is an exclusive enclave on Italy's most cosmopolitan stretch of coast. Sip Bellinis and spot stars at the venerable Hotel Splendido.

서로 마주 서서 포르토피노의 그림 같은 항구를 굽어보는 스플렌디도 호텔과 카스텔로 브라운 성은 이곳의 자부심이자 술한 이야기를 품은 역사적인 장소다. 스플렌디도 호텔은 원래 16세기에 베네딕트 수도회 건물이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약탈을 자행한 해적들의 괴롭힘에 지친 나머지 수사들이 이곳을 떠나고 말았다. 건물은 1902년에 고급 호텔로 변신했고, 머잖아 윈스턴 처칠 경과 클라크 게이블, 험프리 보가트와 말론 브랜도 등 세계적인 유명인사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열정적인 로맨티스트인 리처드 버튼은 심지어 스플렌디도에서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청혼을 하기도 했다. 여전히 부와 명성의 대명사로 통하는

이 호텔은 지금도 우디 앨런부터 조지 클루니에 이르는 유명인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레스토랑인 라 테라차에서 세 종류의 이탈리아 토마토를 토핑으로 올린,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이름을 붙인 스파게티를 먹으며 스타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다. 칵테일 바의 수석 바텐더인 안토니오 베칼리는 벨리니를 만드는 솜씨만큼이나 화려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유명하다. 반대편 절벽에 위치한 14세기의 카스텔로 브라운 성 역시 포르토피노 항구와 구시가지를 굽어본다. 영국 집정관인 몬테규 에이츠 브라운이 1867년에 구입한 이 요새는 개인 사저로 유명했다. 브라운 가문의 손을 거쳐 1961년에 포르토피노 시 소유가 된 후에는 박물관으로 변신했다.

Overlooking Portofino's picturesque harbor from opposite perches, the legendary Belmond Hotel Splendido (www.belmond.com/hotel-splendido-portofino) and the Castello Brown (www.castellobrown.com) are the town's most prestigious former residences. Belmond Hotel Splendido began life as a 16th-century Benedictine monastery. Decades of ransacking pirates wore down the resident monks, who eventually abandoned the site. The edifice was converted into a high-end hotel in 1902, and was soon wooing the likes of Sir Winston Churchill, Clark

Gable, Humphrey Bogart and Marlon Brando. Today, the hotel is just as popular with celebrities, from Woody Allen to George Clooney. Savor a plate of Spaghetti alla Elizabeth Taylor (with three types of tomatoes) while star-spotting at restaurant La Terrazza. In the Cocktail Bar, head barman Antonio Beccalli is as famed for his flamboyant crooning as he is for his Bellinis. On the cliff face opposite, 14th-century Castello Brown also overlooks Portofino's harbor and Old Town. Purchased by British consul to Genoa, Montague Yeats Brown, in 1867, the fortress was renovated into a private home. In 1961, it was acquired by the Portofino Municipality and transformed into a museum. The castle's interior may be austere but the Mediterranean garden, with its climbing roses and sublime vistas, make the steep hike assuredly rewarding.



이탈리아 리비에라의 보석 셋, 친퀘테레

Paradise Preserved

그림엽서 풍경처럼 아름다운 친퀘테레의 다섯 마을 앞으로는 리구리아 해의 파도가 출렁이고, 뒤로는 포도밭이 펼쳐지며, 사람들은 해안길을 통해 서로의 마을을 오고 간다.

The five villages of the Cinque Terre are lapped by the Ligurian Sea, backed by organic vineyards and linked by a fragrant coastal path.

이탈리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에 펼쳐져 있다. 친퀘테레의 다섯 마을은 금방이라도 쪽빛 리구리아 해에 빠져들 것처럼 해안 가까이 자리 잡고 있다. 해안선을 따라 좁고 길게 형성된 마을 전체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그중 가장 큰 마을인 리오마조레는 요식업의 중심지다. 오징어 튀김인 칼라마리 프리티에 현지에서 재배한 시트러스 한 조각 곁들이고, 인근의 포도밭에서 생산된 사케트라, 즉 건포도로 만든 디저트 와인을 마셔야 제격이다. 베르나차 마을의 매력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탐처럼 지은 집이라는 뜻을 지닌 '카셰 아토리'는

파스텔 색감을 자랑하며 항구 안쪽에 정박한 다채로운 보트들을 에워싸고 있다. 그러나 가장 흥미진진한 곳을 꼽으려면 역시 마나롤라다. 디즈니 성 같은 요새가 깜짝 놀랄 만한 높이에서 바다를 향해 서 있다. 하지만 친퀘테레의 역사가 늘 이렇게 찬란했던 건 아니다. 주변을 병풍처럼 두른 산맥은 마을을 이탈리아 본토의 번영으로부터 차단했다. 19세기에만 수만 명이 이곳을 버리고 떠났다. 당시 주민들의 생활은 무척 곤궁했다. 하지만 이렇게 고독한 유산이 지금은 훨씬 편하게 받아들여진다. 마을의 길은 한 세기 전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저장한 타임캡슐 같다. 물고기를 잡고 와인을 만드는 모든 일이 이곳에서는 평범한 일상이다.

The most naturally spellbinding place in Italy sits an hour south of Santa Margherita Ligure. The five villages of Cinque Terre tumble into an azure Ligurian Sea. This coastal strip has been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since 1997. The largest settlement, Riomaggiore, is the regional wine and dining capital. Platters of *calamari fritti* are served with wedges of local citrus, then chased down with Sciacchetrà DOC from the surrounding vineyards. The village of Vernazza is equally enchanting. Its pastel-hued tower houses surround the colorful boats inside the harbor.

But it is Manarola that excites the most. This Disney-like castle redoubt crumbles seaward from a staggering height. However Cinque Terre's history is not all sunshine and limoncello. The surrounding mountains cut the villages off from the prosperity of mainland Italy. Tens of thousands emigrated during the 19th century. Life was grindingly poor. But this lonesome legacy offers a far kinder sentiment today. Village streets are a time capsule of century old life. Skills like weaving, fishing and wine production are still done by hand. Fortunately, these car-free villages have been linked by a 20km-long coastal path since time immemorial. Even more offbeat is the endless hiking and biking tracks that course through the vineyards high above. The surrounding seas have been preserved for eternity as part of the Cinque Terre Marine Protected Area.



대한항공은 로마와 밀라노로 주 3회 운항합니다. Korean Air flies Incheon → Milan and Rome three times a week.

● **찾아가는 길**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는 밀라노에서 남쪽으로 165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1시간마다 다니는 기차를 타고 제노바를 지나면 눈부신 쪽빛 바다가 내내 펼쳐진다. 어떤 열차편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소요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까지 걸린다.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와 포르토피노 사이에는 기차가 다니지 않는다.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해안도로를 달리는 버스(1시간 3회 운행)로 약 20분이면 포르토피노에 갈 수 있다. 산타 마르게리타에서 페리호를 타고 15분 동안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거나, 두 지역을 잇는 해안 산책길을 걷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약 1시간이 소요되며, 중간에 파라지 해변을 지난다.

● **추천 숙박지** 그랜드 호텔 미라마레에 여장을 풀고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의 역사 속으로 흠뻑 빠져들어보자. 1945년부터 푸스티노니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이곳은 지지 피콜리가 1951년에 수상 스키 강습소를 연 곳이기도 하다. 20세기 초반의 플라츠는 산타

마르게리타 해안 바로 앞에 서 있으며, 협죽도가 물결치는 정원이 주변을 두르고 있다.

● **추천 레스토랑** 이 지역의 고급 요리를 맛보고 싶다면 약과 파차를 찾아가자. 현지 셰프인 클라우디오 모데나가 신선한 새우인 감베리 로시에 자신만의 개성을 가미하고, 페스토와 리구리아산 프레신세우아 치즈로 맛을 낸 체스트넛 만딜리 파스타를 선보이는 레스토랑이다.

● **주변 여행지**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 바로 위에 있는 치르콜로 골프 에 테니스 라팔로의 18홀은 13세기 발레 크리스티 수도원의 폐허를 배경으로 펼쳐져 있다. 이 유서 깊은 골프 코스는 애호가들을 매료시켜왔다. 클럽을 가지고 여행하는 게 거주장스럽다면, 치르콜로에 있는 여섯 개의 테니스 코트와 웰빙 스파를 이용하자. 포르토피노 지역공원은 산타 마르게리타 리구레와 포르토피노가 위치한 반도의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GETTING THERE** Santa Margherita Ligure lies 165km south of Milan. Hourly trains (www.trenitalia.com) glide along the route, which takes in stunning seafront vistas after passing Genoa. Depending on the service, journey time ranges from two to three hours. There is no rail connection between Santa Margherita Ligure and Portofino. For visitors without their own wheels, the 5km journey to Portofino is accessible via a 20-minute coastal public bus ride. Alternatively, hop aboard the scenic 15-minute ferry from Santa Margherita Ligure (www.traghettiportofino.it). However, it is also possible to hike the coastal path between the two resorts (approximately an hour's walk, passing the small Paraggi Beach en route).

● **WHERE TO STAY** Visitors can immerse themselves in Santa Margherita's history with a stay at Grand Hotel Miramare (www.grandhotelmiramare.it). Owned by the Fustinoni family since 1945, this early 20th-century palazzo is perched on Santa Margherita's waterfront, and is surrounded by oleander-washed gardens.

● **WHERE TO EAT** For a taste of fine Ligurian flavors, head to Acqua Pazza (www.claudiomodena.it). Here, chef Claudio Modena puts his own elegant twist on market fresh *gamberi rossi*, or chestnut mandilli pasta with pesto and Ligurian Prescinseua cheese.

● **WHAT TO SEE** Just north of Santa Margherita Ligure, Circolo Golf e Tennis Rapallo's (www.golfetennisrapallo.it) 18 holes weave their way past the 13th-century monastic ruins of Monastero di Valle Christi. The historic course has been luring golf aficionados since it opened in 1931. Portofino Regional Park (www.parcoportofino.it) cloaks the peninsula on which Santa Margherita Ligure and Portofino are located. Hikers will find themselves in their element: More than 80km of trails criss-cross the regional park. Various routes pass the medieval Abbazia di San Fruttuoso and take in Monte di Portofino's 610m peak.

자세한 문의를 [한진관광](http://www.hanjintravel.com)으로 문의바랍니다. More travel information is available from [HANJIN TRAVEL](http://www.hanjintravel.com) www.kaltour.com

